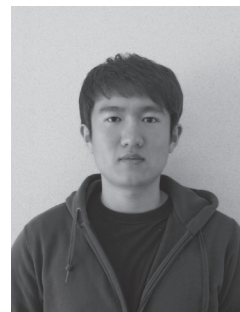


[로스쿨 합격기]

##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세

### 한승효

- 제주 서귀포고등학교 졸업
- 제주대학교 법대 졸업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기



## I. 들어가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합격문자를 받은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게 되어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실 저는 너무 평범합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면, 어떤 분야, 어느 곳에서든지 공부를 꽤나 잘한다는 소리를 한 번쯤은 들었을 인재들일 텐데, 공부에 도가 튼 그들 앞에게 일종의 공부방법론을 전수(?)한다는 점에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로스쿨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미리 전하기 위해 이렇게 합격수기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II. 법학적성시험(LEET)의 준비

### 1. 언어이해

언어이해는 지금도 알다가도 모를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한시간 내에 지문을 분명히 읽었고, 보기 중에서 답이라고 생각한 보기를 찍었지만 채점을 할 때 틀린 문제가 수두룩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 중요한 과목이 언어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어이해를 분석적이고 확률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수능언어영역 기출문제를 시작으로 법학적성시험 기출문제와 시중에 나와 있는 학원의 전국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학원에서 출제하는 방대한 양의 문제를 모두 풀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원에 계시는 연구원 분들도 사람이기에 항상 질 좋은 문제를 뽑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학원문제는 되도록 전국 모의고사와 같은 정제된 문제를 선별적으로 풀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및 기출 통합 약 6회분 정도의 언어이해를 풀고 채점을 해서 인문, 사회/문학/과학, 총 3가지로 분류해서 정답률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문학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는 인문, 사회, 마지막으로 과학분야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게 정답률이 나오면, 남은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풀 때 항상 정답률이 가장 높은 분야의 지문부터 골라내서 먼저 풀고 시간을 배분 하였습니다. 이걸 지극히 개인적인 풀이 성향이라 그대로 권고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저의 경우 정답률이 높은 분야의 지문을 먼저 풀어 나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었고 또 전체적인 정답률도 높았습니다.

오답풀이는 문제를 풀어 보고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문제 푸느라 조금은 지치더라도 지문의 잔상이 남아있을 때 오답풀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지문과 보기의 짜깁기 형식으로 내용을 맞추는 오답풀이를 하고 마는데, 저는 더 나아가 이 지문을 풀 때의 문제점, 예를 들면 “갑자기 앞에 풀었던 문제가 마음에 걸려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심리적인 상황까지 구구절절 오답노트에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답노트를 쓰다 보니 일기를 쓰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기만의 대처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이해는 많이 풀고, 많이 안다고 잘 보는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문제를 접하는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추리논증을 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35문제를 모두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하고 정답률이 높았던 지문의 오답률을 최대한으로 낮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2. 추리논증

추리논증은 제가 정말 취약했던 과목이라 누군가에게 혼수를 두기가 참으로 꺼려집니다. 추리논증 과목에서는 앞서 언어이해를 다루던 그 분석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늘 많이 틀렸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논리학은 반드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 이, 대우와 같이 대놓고 논리학을 물어보는 시험은 요즘 추세에 맞지 않지만 법학논증의 경우에도 논리학적 사고를 반드시 물어보게 됩니다.

수리추리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저에게는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더라도, 한 문제당 읽고 생각하는 데 2분을 넘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분이 넘어가도 펜을 쓰지 못했다면 그 문제는 20분을 주어도 풀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히 버렸습니다.

추리논증 역시 기출문제 및 전국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출제의 유형이 법적 논증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수리추리의 비중이 점차 줄어든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제풀이의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추리논증의 경우 수학적으로 머리가 좋은 분들에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의 주변 지인들을 보더라도,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이

공계 계열 학생들이 추리논증을 월등하게 잘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으로 흥미가 없는 나머지 수험생 분들은 추리 논증에서 점수가 너무 나오지 않는다고 좌절하 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예전에 다니던 학원 추리논증 강사가 “저도 이거 풀면 많이 맞아봐야 27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라는 말을 듣고, 바로 이 과목에 대한 입장정리가 들어갔 던 것으로 .

### 3. 논술

논술은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입니다. 논 술의 경우 사실 비중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고 거의 형식적으로 보는 것 같은 과목이지만, 그 래도 법학적성시험(LEET) 중 하나의 과목이라 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경우 논술은 학원에서 정말 많이 배웠 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첨삭을 받으면서 글을 계속 쓰고 지적받고 수정하고 글을 쓰는 과정 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논술은 쓰면 쓸수록 실력이 향상하는 과목이라 수험생 개인의 노력 이 정말 필요합니다.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논술의 경우 지문 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이 주 어짐에도 항상 시간을 가득 채워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지문을 읽으면 다 풀립 니다. 우선 지문을 읽고 글의 구조를 정하는 데 에 20~30분을 투자했습니다. 정-반-합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먼저 정하 고 그에 따른 반대 논거 역시 지문에서 찾아 쓰 며 이에 대한 재반박 논거를 정리하면서 글을 써내려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 문의 주요논거는 모두 열거 할 수 있고, 구조 를 잡아줬으니 자연스럽게 채점자가 읽기 편한 글도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0~30분은 구조에 따라 살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사실 큰 틀이 잡히면 살을 부치는 작업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해당 지문에 나 오는 주요논거, 그 안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점자는 지문상의 논거와 표현을 답안지에서 찾기 마련 입니다. 주요 논거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답 안지에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외의 것은 개인적인 글쓰기의 스킬이라, 더 이상 언급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 4. 스터디

스터디는 최대 5명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문제들은 3~4명의 머리 안에서 대부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잘못되었을 확률이 높 기 때문입니다.

스터디의 목적은 일주일 중 일정 시간 법학 적성시험(LEET)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강제하 는 생활스터디의 목적도 있고, 모르는 문제를 서로 토론하며 풀어나간다는 점, 그리고 스터 디를 통해 상대방의 문제풀이 방식을 보고 배 운다는 점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스터디는 필수라고 하지만, 저 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부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스터디를 매일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법학적성시험 (LEET)을 잘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스터디 를 매일 빠지지 않고 나갔다고 오늘은 공부했 다는 만족감에 하루를 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왜 틀렸지 하는 끊임 없는 고민과 이해가 반복되어야 하고 자기만의 것으로 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 주의할 점은 인간관계입 니다. 저는 인복이 좋아서 인지 스터디 할 때 만났던 사람들과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이

요동치게 된다면, 수험생활에 타격이 큼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III. 공인영어시험

저는 TOEIC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TOEIC을 조금 오래 준비한 편입니다. LC의 경우 항상 고득점을 해왔지만, RC 특히 Part 5, 6에서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결국 문법과 단어를 많이 아느냐의 문제였는데, 문제를 계속 풀기보다는 문법을 차분히 다시 보고 단어를 외우는데 시간투자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TOEIC의 경우 로스쿨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일반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고득점 학생들의 공부방법론을 찾아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TOEIC의 경우 적어도 2월 안에는 끝내놓아야 편합니다. 그래야 3월부터 법학적성 시험을 볼 때까지 집중을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끝내지 못했다면 늦어도 3월내에는 반드시 최소 900점 이상은 확보하기를 권장합니다.

### IV.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준비

#### 1. 자기소개서의 준비

자기소개서 역시 상당한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 학교 내 로스쿨 입시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첨삭을 세 번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국어교육과를 나와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도 자기소개서의 첨삭을 두 번 정도 부탁할 정도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학교마다 문항과 글자 수가 다르지만 결국 주된 요지는 왜 로스쿨에 진

학하고 싶은지,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로스쿨에 진학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위 세 가지 물음에 대한 수험생 스스로의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출세를 위해, 돈과 명예를 위해, 특별한 사명없이 물 흘러가듯이 지원하게 된 경우라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에서 교수님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제주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로 편입을 해서 다시 제주대학교 로스쿨로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과정에 있어 진지하게 저의 선택에 대해 소상이 설명하기 위해 고민하였고, 저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자신이 왜 로스쿨에 진학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답을 물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 첨삭은 반드시 받기를 권장합니다. 주변에서 첨삭해 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돈을 주고받는 학원첨삭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2. 면접 준비

저 같은 경우 면접준비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 관련 책을 좀 읽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주대학교 면접에서 정도전과 정몽주에 관한 내용이 나오자 속으로 ‘육룡이 나르샤나 볼 것’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평소 시사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시중의 면접교재에서 다루는 분야를

일일이 신경을 써 가며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반드시 스터디를 하길 권장합니다. 심층면접의 경우 지문을 먼저 숙지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데, 지문을 숙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수험생이 소화해 내지만, 남 앞에서 말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의 경우 면접스터디를 따로 하지 않아 말을 할 기회를 거의 갖지 않고 면접에 임했기 때문에 다른 면접자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면접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 V. 마무리하며

저는 사실 로스쿨에 오고 싶다는 욕망이 크지 않았습니다. 법대를 졸업했지만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져 타학교 정치외교학과로 편입을 하게 되었고,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언론, 공무원, 기업 등 다양한 진로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대를 학교에서 공부하며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남들처럼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리는 평범한 삶에 대한 욕망이 훨씬 컸기 때문에 수험생으로 중심을 잡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이란 직업은 항상 저에게 끌림을 주었습니다. 말로 일일이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법조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욱 강한 끌림이었고, 다양한 현실적인 고려도 한 몫을 해 결국에는 이렇게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설명해드리자니 제가 또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다시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학적성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볼 때에도 저의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돌을 던져도 파동한번 느껴지지 않는, 넓고 고요한 바다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수험생이 알지 못하는 문제와 상황으로 수험생들의 정신을 끊임없이 흔드는 것이 바로 로스쿨 입시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변수에 일일이 다 완벽하게 모범답안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시간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견디다보면 어느 새 여러분들 앞에는 합격증이 놓여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미천한 글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